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금융 시장 혼란이 미국 소비 지출 혼돈다
- CNN Business: 온라인에서도 더 싼 제품 찾는 미 소비자들..."인플레 지친다"

[금융]

- WSJ: SVB 사태, 2008년 금융 위기 때 교훈 안 먹혔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연준과 각국 중앙 은행들, 이번주 금리 결정 "딜레마"
- Bloomberg: 한국 올해 초 수출 감소...세계적 수요 냉각 탓

[부동산]

- CNN Business: 2월 미 주택 가격 하락세...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연방 재무부, 반도체 칩 투자 25% 세액공제 규정 정의 발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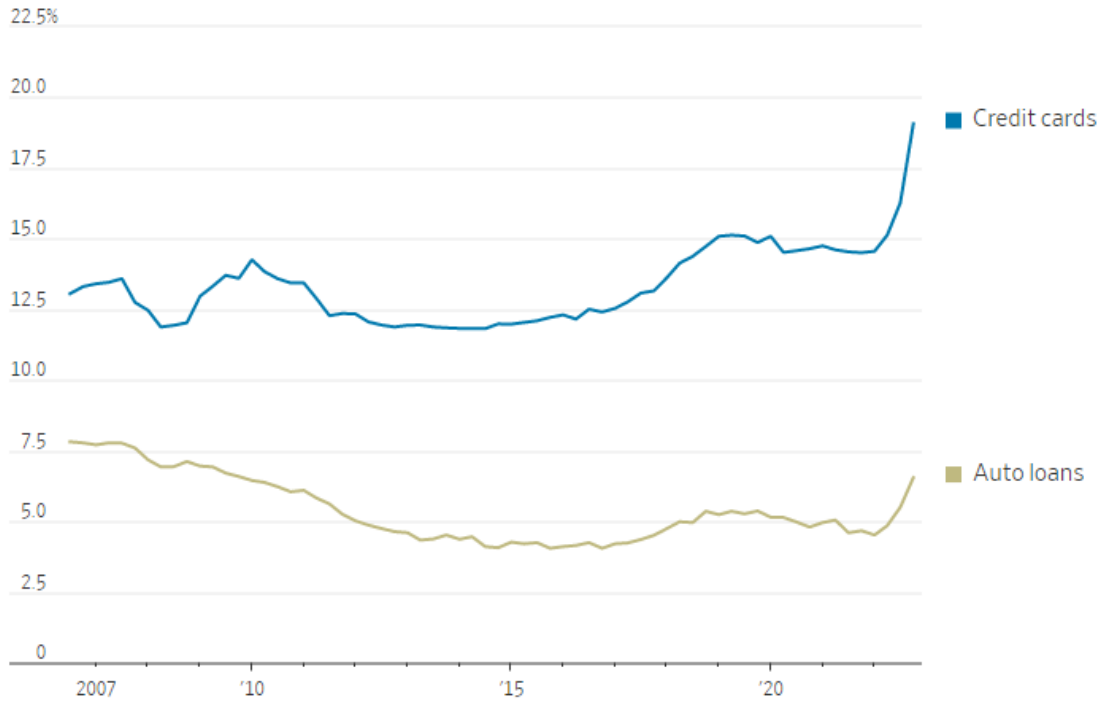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Banking Turmoil Tests the American Consumer

금융 시장 혼란이 미국 소비 지출 혼돈다

-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 소비자들이 집, 자동차와 같은 고액 상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가계는 지출보다 저축을 택하게 될 수 있다.
- 한편 소비자 지출은 미국 전체 생산에 약 70%를 차지하며 높은 인플레와 경제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3월 소비 심리가 4개월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으며, SVB 사태 이후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Interest rates on credit-card accounts and 60-month new auto loans



Source: Federal Reserve

WSJ 기사

CNN Business: From groceries to clothes, inflation-weary Americans flock to cheaper products online
온라인에서도 더 싼 제품 찾는 미 소비자들...”인플레 지친다”

- Adobe Analytics의 새 연구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친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2019년 고가의 퍼스널 케어 제품이 시장의 31%를 점유했던 것에 반해, 올해 2월 말 기준 고가 제품은 시장의 7%를 차지하며 크게 영향력을 잃었다.
- 온라인 식료품 판매의 경우에도 2019년 고가 식품이 24.5%였던 것에 반해 현재 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식료품의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게 되었다. 저렴한 전자제품의 판매는 급증했고, 고가 의류와 장난감 판매는 크게 줄었다.

CNN Business 기사

[금융]

WSJ: SVB-Fueled Turmoil Junks Less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VB 사태, 2008년 금융 위기 때 교훈 안 먹혔다

- SVB 사태 이전에 연준, 의회, 투자자들은 큰 은행들이 너무 쉽게 대출을 해주고 확실하지 않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했으며 정부 채권과 소규모 은행의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08년 금융 위기의 교훈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우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은행이 연쇄 부도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불안정한 도매 자금으로 자산을 조달했다.
- 이번 SVB사태의 경우는 달랐다. SVB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는 예금을 받아 재무부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안전한 은행의 전형을 추구했기에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었다.
- 문제는 SVB은행이 국채에 과하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2007년과 2022년 사이에 은행들은 모기지 증권을 총 자산의 12%에서 20%로 늘렸고, 심지어 SVB는 94%에 달하는 무보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국채는 채무불이행 위험 대신 금리 위험이 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리가 치솟았던 것이다.
- SVB와 같은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더 작고, 단순하고, 상호 연결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은행 실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대규모 글로벌 시스템을 가진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사실상 뒷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This seemed safe

Treasury and federally backed securities, share of banks' total assets



Source: Federal Reserve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he New Central Bank Dilemma From the Fed to the Philippines

연준과 각국 중앙 은행들, 이번주 금리 결정 “딜레마”

- 미국 연준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각국 중앙 은행들이 이번 주 금리 인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리를 동결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지, 금리를 더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할지 딜레마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융을 보호한다면, 글로벌 은행들의 연쇄 붕괴 우려로부터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이다.
- 현재는 내일 수요일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국 은행들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긴축 정책을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KPMG LLP의 이코노미스트인 Diane Swonk는 “금융위기는 급속도로 시작되기 쉬우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금융 시장이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entral Bank Rate Decisions This Week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Source: Bloomberg

Note: Mapped data show rate decision schedules for distinct central banks

Bloomberg 기사

Bloomberg: Korea's Early Exports Fall Further as Global Demand Cools

한국 올해 초 수출 감소...세계적 수요 냉각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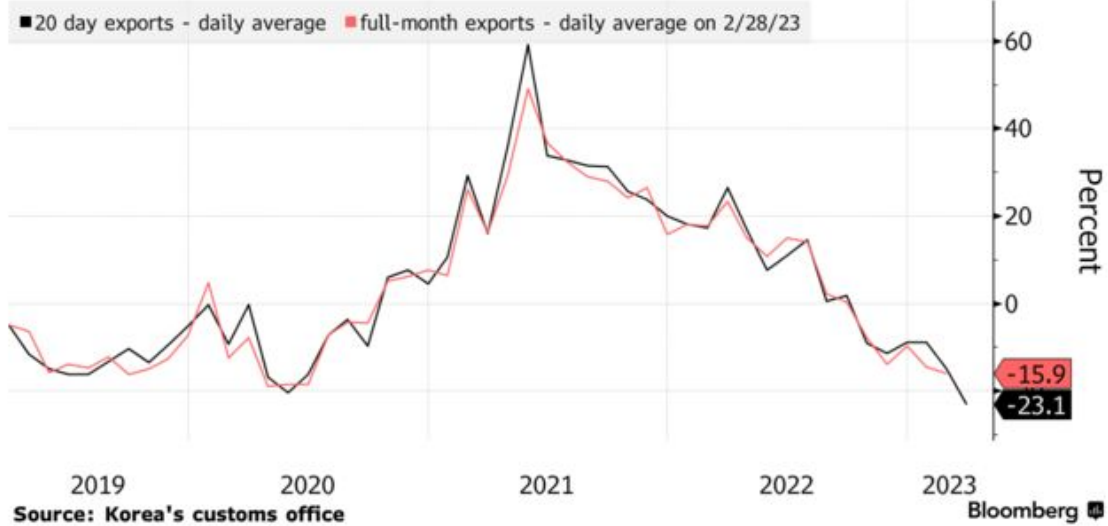
- 한국 관세청의 이번주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초 20일간 한국의 하루 평균 출하량은 전년 대비 23.1% 줄었고, 전체 수출은 17.4%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칩 분야가 44.7%, 대중국 수출이 36.2% 급감했다.
- 이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중국의 재개장이 생각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상위 10개 한국 수출국 가운데 수요가 증가한 곳은 미국이 전년 대비 4.6% 오르며 유일했다.

- 한편 반도체 가격과 중국 수요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며 무역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Declining Exports

Worsening early trade data indicate gloomy March exports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N Business: Home prices fell in February, breaking a decade-long streak of year-over-year increases

2월 미 주택 가격 하락세...1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

- 기존 집값의 2월 평균치는 36만 3,000달러로 1년 전보다 0.2% 하락 했으나, 주택 판매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전미부동산협회가 이번주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0.2% 떨어지며 2012년 이후 10년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 하지만 주택 판매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모기지율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팔리지 못한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편 2월 말 총 주택 재고는 98만 채로 전년 대비 15.3% 높고 지난달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분양 재고는 1월보다 10.3% 줄었지만 1년 전의 1.7개월보다는 늘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Chip Makers to Find Out How to Get 25% Investment Tax Credit
미 연방 재무부, 반도체 칩 투자 25% 세액공제 규정 정의 발표**

미 연방 재무부가 작년부터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국가에의 반도체 칩 의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 신규 투자 시 25% 세액공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번주 화요일 세금 감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고 핵심 조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1.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2. 반도체 제조업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옥외 조명과 같은 시설에 사용한 비용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특정 외국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에 해당된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미 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블룸버그 "금융위기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중"**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